

위대함은 사소함의 얼굴로 나타난다

(사도행전 16:6-15)

성경 사도행전 16장 11절과 12절에는 인류 역사의 거대한 물줄기가 바뀌는 찰나의 순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드로아를 떠나 사모드라게를 거쳐 유럽의 첫 관문인 네압볼리에 발을 내딛는 장면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사건은 몇몇 전도자가 배를 타고 이동한 사소한 여정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이 장면을 목격하며 “그 배에는 유럽 문명의 미래가 실려 있었다”고 단언했습니다.

당시 그 배는 로마의 거대한 전함이나 화려한 상선들에 비하면 보잘것없이 작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배 안에 실린 복음이라는 씨앗은 이후 로마 제국을 변화시켰고, 유럽 천년의 역사를 지배하며 인류 문명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겨자씨 한 알 같은 믿음이 거대한 유럽 문화의 뿌리가 된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화려한 간판 뒤에 내걸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소하고 초라한 일들 속에 보화처럼 숨겨두기를 즐겨하십니다.

바울 일행이 네압볼리를 거쳐 들어간 곳은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인 빌립보였습니다. 성경은 의도적으로 두 장소를 대비시킵니다. 먼저 12절에 등장하는 빌립보는 로마 황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를 기념해 만든 직할시로, 세금 면제와 각종 특권이 부여된 '리틀 로마'였습니다. 그곳은 세상의 권력, 부귀, 철학, 법률이 집약된 웅장한 도시였습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지지 못한 유대인들은 추방당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회당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세속의 성벽은 높고 견고했습니다. 반면 13절은 이 웅장한 도시와 극명하게 대비되는 '성문 밖 강가'를 비춥니다. 그곳은 번듯한 건물도 없이 겨우 울타리만 쳐진 허름한 기도처였습니다. 과거 바벨론 포로기 유대인들이 강변에 앉아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던 것처럼, 빌립보의 기도처 역시 세상 중심에서 밀려난 이들의 눈물과 한숨이 서린 초라한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로마의 영광을 재현한 빌립보 성안이 아니라, 성 밖 강가의 이름 없는 사람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보통 기도처에는 최소한의 유대인 남자들이 있기 마련이지만, 그날 빌립보 강가에는 오직 여자들뿐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통념상 여자들은 하찮고 보잘것없는 존재로 취급받았습니다. 바울 일행이 그들을 외면하고 지나쳐도 누구 하나 탓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 사소해 보이는 모임 속에 주저앉았습니다. 성경은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말했다'고 기록하는데, 헬라어 원문은 이를 미완료 과거형으로 표현합니다. 이는 단 한 번의 짧은 언급이 아니라, 예수의 탄생과 고난, 부활과 승천의 도리를 반복해서 상세히 설명했다는 뜻입니다. 이때 두아디라에서 온 자색 옷감 장사 루디아가 바울의 말을 듣습니다. 루디아 역시 바울의 말을 가볍게 흘려듣지 않고 '계속해서 경청'했습니다.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하셨을 때, 우리는 수천 명이 운집하는 대부흥을 예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겨우 성 밖 강가에서 만난 여인 한 사람에게 머물렀습니다. 우리의 오해와 달리, 하나님의 위대함은 바로 이 '사소한 한 사람'을 향한 지극한 정성과 태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으로 살면 인생이 창대해지고 복을 받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본심은 우리의 인생을 씨앗으로 삼아 세상이라는 땅속에 송두리째 파묻어 버리는 데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이 이를 증명합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으나 노예로 팔려갔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성경은 그가 노예일 때와 감옥에 있을 때 역설적으로 '형통했다'고 기록합니다. 세상 누구도 부러워하지 않는 비참한 상황을 하나님은 형통이라 부르십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의 본질입니다. 씨앗이 땅에 심겨지면 가장 먼저 땅에 삼켜져야 하고, 자신의 원래 모양이 사라지는 죽음을 경험해야 합니다. 성도가 세상에서 겪는 소외, 무너진 자존심, 보이지 않는 미래는 사실 우리가 생명의 씨앗으로서 땅에 심겨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어두운 곳에 홀로 심으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성장하고, 우리를 삼킨 세상이 우리를 양분 삼아 새로운 생명을 얻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위대함은 거창한 비전이나 화려한 목표에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일 반복되는 자질구레하고 사소한 일들을 대하는 태도에서 결정됩니다. 부부 관계에서의 인내, 자녀를 향한 끊임없는 잔소리와 헌신,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일상의 투쟁들이 바로 거룩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빌라델비아 교회가 유일하게 칭찬받은 이유는 그들이 '큰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일상의 사소한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물건이 클수록 비싼 경우가 많지만, 다이아몬드나 금반지처럼 작을수록 더 귀하고 비싼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들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지루하고 단조로우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은 비로소 "네가 나의 깊은 뜻을 알게 되었구나"라며 기뻐하십니다. 사소하고 초라한 일을 마주하며 기도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위대함이 우리 삶에 잉태되는 순간입니다.

사람들이 위대함에 이르지 못하는 이유는 초라함을 믿음으로 견뎌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겉보기에 괜찮은 모습만 연습하며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씩어지는 밀알로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특별한 실력도, 영광도, 권세도 없어 보이는 우리의 평범한 하루하루—납뽀의 무관심을 견디고, 아내의 잔소리를 감내하며, 자식들의 미래를 위해 내 인생을 깎아 먹는 것 같은 그 초라한 날들—속에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 대신 '기다림'과 '성실'이라는 씨앗을 심으십니다.

바울이 만난 루디아는 유럽 최초의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녀의 집은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가 되었습니다. 변두리와 변방, 가장 사소해 보이는 곳에서 위대함이 숨 쉬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처한 상황이 아무리 사소하고 자질구레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버린 돌을 가져다가 집의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당신의 사소한 일상을 감사함으로 받으십시오. 그 사소함 속에 믿음을 심고 인내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풍성한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